

Ⅲ

국문학 · 국어학과 서울 연구

李 東 夏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 차

.....

1. 머리말
2. 국문학과 서울 - 자료 검토
3. 국문학과 서울 - 소결
4. 국어학과 서울
5. 맺는 말

1. 머 리 말

지금 나에게 맡겨진 과제는, 국문학과 국어학이 서울 연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참조할 만한 선행업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지금, 나로서는,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문학의 방대한 유산 중 서울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한 작품 몇 편을 선별하여 간단히 정리하고, 그러한 정리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문제 몇 가지를 제기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국문학과 서울 연구를 연결시켜 다루는 일이 이제 겨우 출발 단계에서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작업도 일종의 기초공사로서 얼마쯤의 의의는 지닐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국어학은 본래 나의 전공이 아닌 만큼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국어학 전공자인 성기철 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얻은 내용을 이 글의 끝부분에 정리해 두기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국문학쪽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계속해 보자. 위에서 나는 <국문학의 방대한 유산 중 서울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한 작품>을 몇 편 골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제해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1) 20세기 이전의 문학과 20세기의 문학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첫째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문학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세목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단지, 20세기의 문학을 <근대문학>이라 부르고 그 이전의 문학을 <고전문학>이라 불러 구별하는 것이 국문학계의 <이유있는> 관행임을 잠시 상기시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듯 싶다. 그 다음 두번째의 이유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문학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

도의 팽창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을 잠시 덮어두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안배만 고려해 보더라도 20세기의 문학을 별도로 취급하는 일은 충분히 명분이 서는 것이다.

(2) 어떤 작품이 단지 서울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될 자격을 얻지 못한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면 그야말로 한우충동(汗牛充棟)이다. 특히 인구의 서울 집중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된 20세기의 문학이 그렇다. 20세기에 나온 한국 문학작품의 압도적 다수가 서울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서울을 단순한 배경으로 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의 어떤 의미있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한 작품>으로 논의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상의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기로 하자.

2. 국문학과 서울 - 자료 검토

1) 20세기 이전의 작품들

서울의 역사는 암사동 유적지의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아득한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시대로 고려의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위례성을 최초의 수도로 정했던 백제시대, 수도 개경 이외에 따로 남경을 두었던 고려 시대 등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나, 서울이 본격적으로 한국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또 문학의 세계에도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서부터이므로, 여기서는 조선시대만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 시가문학쪽을 살펴보고 이어서 산문문학을 다루기로 하겠다.

가) 시가문학

서울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조선조의 시가문학 작품들 가운데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조선의 개국과 서울로의 천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정도전의 작품이다. 「신도가(新都歌)」(악장), 「신도팔경시(新都八景詩)」(한시)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이 계열 작품들에는, 새로운 역사창조의 주역이 된 사람이 웅당 가질 법한 패기와 그 새로운 역사의 중심마당이 된 서울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 있다. 「신도가」를 한번 인용해 보자.

네는 楊州 | 오을히여/디위에 新都形勝이샷다/ 開國聖王이 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
온더 當今景 잣다온더/ 聖壽萬年 ㅎ 샤 萬民이 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디리/ 알 픈 漢江水
여 뒤흔 三角山이여/德重 ㅎ 신 江山 즈으메 萬歲 를 누리쇼서

정도전의 경우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권근의 「신경지리(新京地理)」(한시), 정이오의 「남산팔영(南山八詠)」(한시), 변계량의 「화산별곡(華山別曲)」(경기체가), 윤희의 「경회루시(慶會樓詩)」(한시) 등등으로 대표되는 다른 개국 초기 시인의 작품들도, 현재의 서울에 대해서나 미래의 서울에 대해서나 한결같은 찬양조의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건국 초기의 작품들다운 면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조 개국 이후에 태어난 서거정 · 이승소 · 강희맹과 같은 시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한도십영(漢都十詠)」(한시) 같은 작품에서도 변함없이 견지된다. 그러나 방금 말한 세 시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이석형의 작품 「호야가(呼耶歌)」(한시)를 보면 서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허덕이는 민중의 참상이 묘사되고 있어, 찬양 일변도의 문학전통에도 어느덧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이 찬양도 비판도 접어두고 단지 유자로서의 풍류를 즐긴다는 자세로 창작한 - 그러면서도 시 속에 서울의 면모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것으로 특징을 삼은 - 작품들도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수많은 시인들의 한시와 더불어, 허강의 가사 「서호별곡(西湖別曲)」을 이러한 계보에 속하는 작품의 종을 실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왕조가 그 후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자, 서울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작품에도, 달라진 정세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 초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예가 정두경의 한시 「등룽한산성(登凌漢山城)」이다. 17세기에 씌어진 이 작품을 보면, 일본과 청에 대한 대결 의식을 견지하면서 서울을 보다 강고한 왕국의 중심지로 재건하고자 하는 결의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작품은, 달라진 시대의 상황을 나름대로 의식하기는 하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자세에 기초하여 새로운 건설을 꿈꾸는 입장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로 넘어가면 이보다 한결을 더 나아간 의식이 우리 나라의 선구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나마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흔적은 서울에 초점을 맞춘 시가문학의 영역에도 어김없이 투영된다.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의 한시 「성시전도(城市全圖)」가 그 좋은 사례이다. 박제가는 이 작품에서 실학자답게 시정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실상을 생생하게 부각시키고자 애썼는데, 이와 같은 실사구시의 정신은,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근대지향적인 면모를 갖춘 것이었다.(물론 여기에도 그것대로의 전근대적인 요소는 존재한다. 비판적인 의식을 선명히 하고 변혁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 19세기에 이르면 「한양가(漢陽歌)」라는 제목의 역작이 출현하게 된다. 한산거사라는 별호만으로 알려진 사람이 지은 이 장문의 국문가사는 19세기 서울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발랄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박제가의 「성시전도」가 가진 근대지향적 면모와 전근대적 면모의 양면성을 그대로 연장시킨 자리에 서 있는 것이면서,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창작된 덕분에, 「성시전도」의 경우보다 훨씬 생생한 표현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작품의 일부를 들어 두기로 한다.

큰광통교 너머서니 늑주비전 여기로다/ 일아는 여립군과 물화마튼 전시정은/큰창옷세
갓을 쓰고 쇼창옷세 한습 달고/ ㅎ 람불너 흥정 홀제 경박 ㅎ 기 측양없다/빅 목전 각식방
에 무명이 ㅈ 여서라/강진목 ㅎ 남목과 고양 ㅎ 이 강 ㅎ 이며/상고목 군포목과 공물목 무
녀포와/천은이며 정은이며 서양목과 서양주라

그런가 하면 작자 미상의 불교가사인 「장안걸식가(長安乞食歌)」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불교적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것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작품 속에 생생히 부각되고 있는 서울 거리의 구체적인 풍물들이기 때문이다.

나) 산문문학

20세기 이전의 산문문학작품들 중, 조선 전기의 작품, 즉 임란 이전의 작품들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잡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관해 언급한 대목들이 거기서 가끔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서울을 여러 전대 왕조들의 수도와 비교하여 논한 대목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허균의 일사소설(逸士小說)인 「장생전(蔣生傳)」 같은 작품도 한번쯤 짚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임란 이후, 즉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전(傳) · 야담 · 소설 등 다양한 산문장르들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과 야담 두 영역에서도 서울에 관한 자료들이 여럿 발견된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는 비록 앞의 두 장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시대순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정내교(1681~1757)의 「김성기전(金聖基傳)」과 「임준원전(林俊元傳)」, 박지원(1737~1805)의 「마장전(馬駟傳)」과 「광문자전(廣文者傳)」, 유득공(1748~1807)의 「유우춘전(柳遇春傳)」, 이옥(1760경~1810경)의 「유광억전(柳光億傳)」, 「시간기(市奸記)」 및 이홍(李泓)에 대한 이야기, 조수삼(1762~1849)의 「육서조생전(鬻書曹生傳)」 및 「추재기이(秋齋紀異)」 중의 전기수(傳奇叟)에 대한 기록 등이 열거될 수 있다. 방금 열거된 작품들의 필자 가운데서 박지원과 유득공은 실학과 지식인이고, 이옥은 정통 한문학의 규범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평생을 불우하게 보낸 남인 계열의 문사이며, 정내교와 조수삼은 위향인으로서 문학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보면 각자 구체적인 처지는 다르지만 자기가 처한 시대 속에서 뜻을 펴지 못했다는 점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 시대의 규범에 대항했다는 점에서 이들 전원이 동일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의 소유자답게 구체적인 삶의 실상을 탐구하여 형상화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으

며, 이러한 방향에서 상당한 양의 업적을 내기도 했다. 그들의 작품 가운데 서울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예가 여럿 나오게 된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 중 두 대목 정도만 예시하기로 한다. 번역문의 텍스트는 모두 이우성·임형택 두 사람이 편역한 「이조한문단편집·중」(일조각, 1978)에서 뽑은 것이다.

서울에 세 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편은 배오개, 서편은 소의문, 중앙은 운종가다. 모두 좌우 양편으로 전이 늘어서 은하수처럼 벌여 있다. 온갖 장인바치며 장사치들이 저마다 가진 바 물건들을 내놓으매 사방에 쌓인 물화(物貨)가 구름처럼 밀리고 물처럼 모인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관대(冠帶)·의복·신발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에 만인의 눈이 쏠려 오직 이익 그것만을 바라고, 만인의 입이 지껄이며 오직 이익 그것만을 꾀한다. 한 사람이 팔려 하고 한 사람이 사려 하매 또 한 사람이 거간을 서, 해가 뜨면 모이고 해가 지면 파한다. 장관에 다니면 어깨와 등이 부딪히고 서 있어도 갓을 바로 쓰지 못한다. 간교한 소인들이 고기못을 이루고 새떼를 지어, 그곳에 출몰하며 사람을 현혹시킨다. 심한 놈은 주머니를 슬쩍해서 남의 돈을 빼앗고 그 다음은 거짓을 꾸며서 유리하게 팔아 넘긴다.(「시간기」의 서두)

조생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다만 책장수로 세상에 뛰어다니는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귀천·현우를 막론하고 그를 보면 누구나 조생인 줄을 알아보는 것이다. 조생은 해가 뜨면 나와서 시장으로, 골목으로, 서당으로, 관청으로 달린다. 위로 진신대부(縉紳大夫)로부터 밑으로 소학동자(小學童子)에 이르기까지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달리는 것이 나는 듯하다. 그의 가슴이나 소매에 잔뜩 담겨진 것은 책이다. 책을 팔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술집으로 달린다. 술을 사 마셔 취하고 날이 저물어 달려서 돌아간다.(「육서조생전」의 서두)

이러한 대목들에서 우리는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의 서울 거리를 눈에 보는 듯 실감할 수 있으며, 그 거리에 흘러넘치고 있던 어떤 역동적 에너지를 손으로 잡는 듯 실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위의 작품들은 저 「성시전도」와 「한양가」에 대응된다.

2) 20세기의 작품들

앞에서 이미 말한 바대로, 20세기는 본격적인 근대문학이 정착된 시대요, 작품량의 엄청난 팽창을 보인 시대라는 점에서, 그 전의 모든 시대와 분명하게 구별지어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20세기는 일제강점과 분단의 비극을 겪은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사정은 당연히 서울을 부각시킨 작품들에도 속속들이 투영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시·소설 두 분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때문에 희곡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가) 시

20세기에 들어와 창작된 시 가운데 대부분은 본격적인 근대문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전무하지는 않다. 그 드문 예외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한양 오백년가」 혹은 「한양가」라는 제목의 장편가사가 있는데, 서울을 특별히 부각시킨 문학 작품의 목록에서 이것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사공수가 1913년에 창작한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서울의 5백년 역사를 읊은 것이다. 국가의 멸망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작자의 뜻이 강렬하게 부각되어 있는 작품이다.

한편, 최남선, 김억, 주요한 등에 의하여 개척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근대시의 흐름은, 대략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울>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작품들을 대량으로 산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에 탄생시킨 작품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두루 다룬다는 것은, 아무리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논의의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내가 임의로 선정한 7편의 작품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실상의 한 단면을 엿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1) 「네거리의 순이」 -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평론가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카프 후기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임화가 1929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적 감수성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그는 이 작품에서 <눈바람찬 불쌍한 도시 종로 복판의 순이>라는 여성노동자와

역시 노동자인 그 오빠를 등장시킨다. 그리고는 오빠가 누이에게 건네는 발화라는 형식을 통해, 서울을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노동자의 투지와 결의를 확인시킨다. 이 작품에 이르러 서울은 <노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간>이라는 새로운 면모를 얻게 되는 셈이다. 임화는 이 「네거리의 순이」 이후 「다시 네거리에서」, 「9월 12일 - 1945년, 또다시 네거리에서」, 「서울」 등을 계속 창작한 바 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서울 거리에 대한 시적 탐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 과제였는가를 증명해 주는 일이다.

(2) 「장곡천정에 오는 눈」 -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김광균은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우울하면서도 섬세한 파스텔톤으로 도시적 서정을 노래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와사등(瓦斯燈)」, 「설야(雪夜)」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서울을 두고 쓴 작품임이 제목이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장곡천정에 오는 눈」, 「신촌서」, 「눈 오는 밤의 시」 등도 그 작품들에 못지 않은 격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균의 시가 과연 얼마만한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그 점과는 별도로, 서울에 대해 감성적 모더니스트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여기서 빼놓지 못할 시인의 자격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수부(首府)」 - 오장환이 1936년에 발표한 11연 124행의 장시이다. 이 작품의 서두 부분이 다른 곳 아닌 화장터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시사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진정한 생명을 상실해 버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망상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의 집결처가 서울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에 이르러 한국의 시문학은 서울을 소재로 삼는 가운데 문명비판의 기치를 높이 든 대작 한 편을 얻게 된 셈이다. 이와 아울러, 해방 직후 오장환이 「병든 서울」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이 작품에서 그는 <병든 서울아>, <다정한 서울아> 등등의 말로 거듭 서울을 부르면서, 해방을 맞이한 감격, 지난날에 대한 자신의 회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각오, <씩씩한 새나라를 세우려 애쓰는 이들>에 대한 기대 등등을 격앙된 어조로 읊고 있다.

(4) 「광화문」 - 서정주가 1955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제2시집 「귀축도」(1946)에서 전통적 세계로 회귀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던 서정주는 1950년대로 접어들자 그러한 방향의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더욱 원숙한 시세계를 보여주게 된다. 「광화

문」은 바로 이러한 단계에서 나온 대표적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 가시적 상징인 광화문에서 찾아내고 있는 이 작품은 탁월한 언어감각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찬탄의 정서를 담고 광화문을 바라보는 서정주의 시선에 의하여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은 하나로 결합된다. 어제의 서울로부터 남겨진 유산이 일급의 현대시 속에서 이처럼 애정어린 눈길로 조명된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시인의 정서가 지나치게 복고적이거나 현실순응적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5)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 - 1977년에 발표된 정희성의 시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의 화자가 서 있는 지점은 「광화문」의 화자가 서 있는 지점과 거의 동일하다. 「어두운…」에 나오는 화자의 시선이 정부종합청사, 조선총독부 건물, 옛 궁성의 담 등등을 훑고 간다는 사실에서 이 점은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이처럼 거의 동일한 지점에 서 있는 두 화자는, 그 내면공간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천리의 간격을 두고 있다. 「어두운…」에 나오는 화자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하여 격렬히 분노하고 있는 비판적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서울은 <광목 폭 찢어 펄럭이며/피묻은 팔뚝 함께 일어서 /만세 부르던> 혁명의 기억을 지닌 공간이며,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비판적 지식인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중지향적 지식인 - 의 숨결이 서린 공간이다.

(6) 「가리봉 시장」 - 1970년대에 「어두운…」의 화자와 같은 비판적 지식인에 의해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한 <민중>은, 1980년대에 이르면 더 이상 지식인의 조명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주체가 되며, 많은 경우, 지식인의 기대수준을 훨씬 앞서가는 투쟁성을 과시하게 된다. 박노해의 시세계에 출몰하는 많은 민중화자들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서울이라는 도시도 새로운 의미를 띠고 살아나게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임화가 일찍이 「네거리의 순이」에서 보여주었던 서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임화 시대의 서울과 <천만 노동자>를 운위하게 된 박노해 시대의 서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추상과 구체의 차이, 혹은 관념과 현실의 차이이다.

(7)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연작 - 주지하다시피 역사의 흐름은

박노해와 같은 사람이 예상하고 또 희망했던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1980년대 말을 넘기면서 세상은 또 한번 엄청난 격변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가리봉동과 같은 공단지대를 대신하여 이 시대의 의미를 집약하는 상징적 지명으로, 압구정동이 떠오른다. 1980년대 말~1990년대초의 가장 주목받는 신진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상한 유하의 10편에 달하는 연작시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바로 이러한 <압구정동 현상>을 성실하게 반영하면서 그것에 대해 다양한 성찰을 가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이 작품들은 얼핏 보기에는 성실이라는 말과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난기, 재치, 가벼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장난기, 재치, 가벼움이야말로 유하가 이 연작에서 압구정동 현상을 <성실>하게 반영했다는 증거에 다름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압구정동 현상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닌 요소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런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나) 소설

20세기의 한국소설에서 <서울>에 초점을 맞춘 문제작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략 1920년대부터이다. 그리고 역시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이러한 성격의 작품은 실로 엄청난 양이 창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중 7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정도에서 멈추기로 한다.

(1) 「사랑과 죄」 - 서울 태생의 소설가인 염상섭이 1927년부터 그 이듬해까지에 걸쳐 발표한 장편소설 「사랑과 죄」는 그가 쓴 첫번째의 대작장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아 마땅한 작품이지만, 식민지의 수도가 되어버린 서울의 혼란과 타락을 정면에서 파헤치는 한편 그 혼란과 타락의 밑바닥에서 새로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재생의 싹을 성실하게 조명하려 애쓴 최초의 한국소설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의를 인정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 작품은 평단과 학계의 일각으로부터 <다분히 통속적인 소설>이라는 평을 즐기치게 받아오고 있으나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탁월성과 인간에 대한 탐구의 깊이를 감안해 보면 그러한 평은 별로 타당한 것

이 못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보영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에 대한 염상섭의 소설적 탐구는 초기의 단편 「암야(闇夜)」(1922)에서부터 「사랑과 죄」를 거쳐 1930년대의 역작 「3대」(1931), 「무화과」(1931~1932) 등에까지 이어지면서 20세기 한국소설 속의 한 장관을 형성한다.

(2) 「날개」 -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태어난 천재적 작가 이상이가 193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실험정신이 번득이는 심리소설로서,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한 모범으로서, 식민지 지식인의 삶을 뛰어나게 그려낸 작품으로서 다양한 조명을 받아온 바 있지만, 소설문학에 나타난 20세기 서울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는 자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작이라고 평가되어 부족함이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번째 이유는 1930년대 지식인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이 이 작품 속에 인상적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이유는 -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 -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음울하고 뒤틀린 정조(情調) 자체가 당대 서울의 리얼리티를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3) 「천변풍경(川邊風景)」 - 역시 서울 태생인 소설가 박태원이 1936년 「조광」지에 중편으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장편으로 확대하여 193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소설이다. 이른바 세태소설의 한 전범으로 흔히 거론되어 오고 있는 이 작품은, 청계천 주변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1930년대 서울의 풍물과 습속에 관한 보고서를 뛰어나게 제시해 보이고 있다. 세태소설의 전범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그 보고서는 광범하면서도 정밀하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 따뜻한 휴머니티와 페이소스라는 사실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박태원에게는 이 작품 말고도 서울에 대한 소설적 탐구의 소산으로서 주목해 보아야 할 작품이 여럿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34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다. 구보씨라는 이름의 소설가 - 사실은 박태원 자신의 호가 구보이다가 하루동안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날개」와 더불어 한국의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존재로 공인되어 있거니와 여기서 작가는 「천변풍경」의 경우와는 또다른 자리에서 서울에 대한 뜻 깊은 소설적 탐구를 행하고 있다. 박태원의 서울에 대한 관심과 조예는 사실 대단한 것이어서, 그가 월북 후에 쓴 대작 「갑오농민전쟁」에서도 가장 정채있는 부분은 서울을 묘사한 대목들이라는 평을 듣고 있을 정도이다.

(4) 「역사(力士)」 - 김승옥이 1964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앞의 세 작가와는 달리 김승옥은 서울 태생이 아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성장기를 보낸 곳은 전라남도 순천인 것이다. 그가 서울에 살게 된 것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에게는 시골과 서울의 상호대비를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서울의 특징적인 면모를 강렬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중요한 작품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탁월하게 살려내었다. 「환상수첩」(1962), 「역사」, 「무진기행」(1964), 「서울 1964년 겨울」(1965)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시골 출신 작가의 눈에 비친 서울의 기묘한 풍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역사」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골 출신의 대학생이 빈민가에서 고급주택가로 하숙을 옮겨간다는 이야기 전개에 의해 서울의 두 가지 대조적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빈민가에서 만난 한 역사의 모습은 서울의 저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야생적인 에너지의 한 흥미로운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5) 「서울은 만원이다」 - 북한에서 월남해 온 작가 이호철이 196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본문 속에, 서울의 당시 인구가 380만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다. 380만명을 놓고 <만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1,200만을 운위하게 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실로 금석지감이 있다 하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만원>이라는 느낌의 질은 거의 동일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표현을 굳이 탓할 것도 없다. 아니, 그처럼 절묘한 표현을 그 당시에 이미 생각해 냈다는 데 대해 감탄을 보내야 옳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그렇고, 이 작품은, 그 제목에서도 이미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태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흘러넘치는 서울의 부박하고 혼란스러운 세태를, 마치 옛날의 박태원을 연상시키는 휴매니티와 페이소스에 근거하여, 흥미롭게 형상화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가 자신이 뿌리 없는 월남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뿌리를 잃은 오늘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6) 「밤길의 사람들」 - 박태순은 황해도 태생이지만 유년시절부터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울을 고향으로 둔 작가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답게 그는 다분히 도시적인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적인 - 감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서울 이야기>를 창작해 왔다. 그의 서울 이야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4·19세대의 감수

성이다. 그의 문학세계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부단한 변모를 보여 왔지만, 그 부단한 변모 속에서도 불변하는 상수로 존재해 온 것이 바로 4·19세대의 자유주의적·이상주의적·미래지향적 감수성인 것이다. 1987년의 6월혁명을 소재로 한 중편 「밤길의 사람들」(1988)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밤길의 사람들」은 27년의 상거를 두고 있는 두 혁명 - 4월혁명과 6월혁명 - 이 서로 마주친 자리에서 일어난 불꽃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싶거니와, 이 작품에서 박태순은 <서울 이야기>에 깊은 조예를 지닌 작가답게 노련한 솜씨로 서울의 여러 구체적인 지역들을 연결하면서, 이 도시가 역사적인 변혁의 시기에는 어떻게 놀라운 변신을 이룩하는가 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7) 「January 9, 1993 미아리 통신」 - 윤대녕이 1993년에 발표한 이 단편소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달라져 버린 서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작품이다.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1980년대를 지배했던 체제변혁에의 열정이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후, 서울은 세련된 문화적 감각을 동반한 허무주의에 의하여 점령되고 만 느낌이 있다. 각각 세종, 뚜생, 베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 젊은이가 미아리의 국화정사숙녀점성가라는 점집을 찾아간 이야기로 되어 있는 「January 9, 1993 미아리 통신」은 이러한 시대의 서울을 그 내용과 문체 양면에서 모두 인상적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밤길의 사람들」에서 클라이맥스 부분의 배경이 되었던 명동성당과 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미아리 점집거리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1980년대의 서울과 1990년대의 서울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간격이 가로놓여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으며, 그 간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3. 국문학과 서울 - 소결

지금까지 나는, 서두 부분에서 말해 두었던 대로, 국문학의 방대한 유산 중 서울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작품 몇 편을 골라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나의 전공분야가 20세기 문학인 만큼 20세기 이전의 문학을 전공으로 삼는 연구자가 이 글을 본다면 아무래도 미흡한 느낌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한다. 반면에 나의 전공분야인 20세기 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에서는, 다루어야 할 작품, 다루고 싶은 작품이 너무나 많고, 그 작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 싶은 사항도 너무 많아서, 말을 줄이느라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대로, 국문학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그러한 작업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생각거리를 정리해 볼 차례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이 글에서 나는 국문학 자료들을 20세기 이전의 것과 20세기의 것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일부는 20세기에 나온 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20세기의 문학작품은 그 대부분이 근대문학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그 이전의 작품들과 근본적인 상이점을 가진다는 사실도, 나로 하여금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두번째의 이유를 기정사실로서 전제하는 데만 그쳤을 뿐, <그런 사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든가 <그런 사정이 갖는 심층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탐구하는 일은 반드시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일과 직결되며, 또 한편으로는, 서울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일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또 서울이라는 도시는 20세기에 이르러 어떠한 역사적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문제와 <한국의 문학작품들,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20세기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그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절실하게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2) 앞에서 내가 언급한 작품들의 면모를 다시 차분하게 살펴보면, 거기서 대략 세 단계의 변화가 느껴진다. 제1단계는 서울을 찬양의 대상으로 파악하거나 풍류의 무대로 이해하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단계이고, 제2단계는 시정에서 영위되는 삶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눈을 뜨기 시작했으되 아직 비판적인 의식을 발전시

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단계이며, 제3단계는 삶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비판적 의식의 표현 두 가지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제1단계는 대략 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제2단계는 대체로 조선 후기에 두드러지며, 제3단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온전히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단계가 바뀌어져 가는 동안, 문학 작품의 창작자들이 서울에 대해 매기는 점수는, 대체로 보아, 줄기찬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서울이라는 특정의 도시 하나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문학자들에게 점점 매력없는 존재로 비치게 되어 갔다는 식의 결론만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극히 피상적인 태도이다. 실인즉 여기에는 서울이라는 한 특정 도시의 범주를 넘는, 훨씬 거창한 규모의 역사적 사실이 강력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회와 문학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근본적 성격이 전세계 곳곳에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달라져 왔고 특히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면서 그 달라짐의 속도는, 근대문학의 본격적 대두가 목격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빨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서울이 문학자들로부터 점점 낮은 점수밖에 얻지 못하게끔 되어간 것은 결코 신기한 현상도, 특별한 현상도 아니며 전세계적인 규모로 발견되는 통례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논의를 여기서 끝내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설령 세계적인 통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 나타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 또 구체적인 정도에 있어 그것대로의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범세계적인 규모의 보편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서울의 경우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면모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균형있고 복합적인 태도이리라.

(3) 위에서 언급된 세 단계의 변화를 보고, <여기서는 일직선적인 진보, 혹은 발전의 양상이 확인된다>고 결론짓는 사람이 많이 있을 듯하다. <단순한 찬양이나 풍류취향보다는 구체적인 실상의 묘사에 힘쓰는 태도가 더 진보적인 것이고, 단순히 구체적인 실상의 묘사에 힘쓰는 것으로 그치는 태도보다는 거기에 다시 비판적인 의식까지를 결들이는 것이 더 진보적인 태도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그런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로, <찬양이나 풍류취향의 표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시대야말로 정말 좋은 시대였다>라는 판단에 입각하여, 그 세 단계의 변화를 타락 혹

은 퇴보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으리라. 나 자신은,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 중 기어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전자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후자보다는 전자쪽을 얼마쯤 더 낮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전자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진보니 근대화니 하는 개념들의 정당성에 대하여 나는 사실 깊은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보다야 전자가 낫다고 보는 이유는, 후자쪽의 논리 속에 분명히 들어 있는, 옛날 사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 -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차별 · 적서차별 · 남녀차별 · 외국인차별 등 갖가지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점과, 상명하복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도덕률이다 - 을 가볍게 보아 넘기려는 태도를, 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려나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임에 틀림없으며, 바로 이런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국문학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을 시대순으로 짚어내려오는 일에서 상당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직하다.

4. 국어학과 서울

삼국이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한반도 언어의 중심지가 된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였다. 그러다가 고려가 건국되자 국어의 중심권은 신라의 한 변방지였던 개성지방으로 옮겨졌으며, 조선왕조가 시작되자 그것은 다시 서울로 옮겨졌다. 그러나 개성으로부터 서울로의 이동은, 지리적으로 두 도시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상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한국어의 중심권이 된 서울 지방은 지금까지도 그 지위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고 보면 서울 지역의 언어는 길게 잡아서 고려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략 1천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중요 공통어라는 자격을 지녀 온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울 지역의 언어는 오랫동안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

언 요소를 보여 왔다. 이러한 특징적 현상은 대체로 구한말까지 뚜렷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제 강점 이후,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서울 방언의 특징적 현상은 퇴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복, 6·25, 근대화에 따른 각 지역 인구의 서울 집중 등이 잇따르면서 그러한 퇴색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결과, 이제 서울 방언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 지역의 방언은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되어야 마땅하다. 서울 방언이 역사적·문화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방언은 국어학자들의 관심권에서조차 멀어져 가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이미 얼마쯤 실기한 느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헌을 면밀히 점검하고, 또 일부 서울 토박이들에게 잔존하고 있는 방언을 조사하여, 그 모습을 어느 정도나마 재현하는 일이 시급하다. 만약 지금까지와 같은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보낸다면 서울의 방언은 끝내 그 모습을 재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현재의 서울 언어는 과거의 서울 언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표준어는 과거의 서울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남북한을 망라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독특한 언어 현상은 언어학적으로뿐 아니라 언어사회학적으로도 자세히 조사·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과거의 서울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고유한 방언을 조사·재구하는 작업이며, 그 둘째는 현재의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언어현상 - 여러 방언이 복잡·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을 조사·연구하는 작업이다.

5. 맺 는 말

이상으로, 국문학 및 국어학의 두 가지 영역에 관한 논의를 전부 마친 셈이다. 국어학의 경우 내가 지닌 능력의 한계 때문에 논의가 너무 간략하게 된 느낌이 없지 않으나 것처럼 소략한 논의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만은 충분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훌륭한 연구들이 국문학·국어학 양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연구의 기본 자세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 보고 이 글을 끝내기로 하겠다.

국문학의 자리에서든, 또 국어학의 자리에서든 서울을 관심의 초점에 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객관성과 냉철성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리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속해 있는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해서, 또는 연구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고 해서, 자신의 연구에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를 개입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혈연, 학연, 지연 따위의 끈적끈적한 요소들에 뿌리를 둔 <한패 의식>으로부터 해방된 합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임을 상기해보자. 이런 덕목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제대로 갖추게 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를 정말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어림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국문학이나 국어학의 입장에서 서울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이런 덕목을 정착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작업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리성이 지배하는 진리의 전당에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어떤 자리에서나 가능한 최대한의 학문적 객관성과 냉철성을 견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문헌

- 김영상. 「서울 600년」(1~3). 대학당, 1994.
- 김창식. 「일제하 한국 도시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남진우. 「바벨탑의 언어」. 문학과 지성사, 1989.
-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 서준섭. 「한국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 신상훈. 「위례성에서 서울까지」. 계명사, 1994.
- 오생근. 「현실의 논리와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4.
- 이보영. 「염상섭 소설과 서울」. 『표현』 제15집, 1988.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 .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 이태진.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발달 단계」. 『서울학연구』 창간호, 199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3판」(3~5). 지식산업사, 1994.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학연구소, 1994.